

# OECD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규모 변화

황 덕 순\*

## I. 문제제기: 분석방법과 분석대상

이 글에서는 OECD의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체제 유형과 나라별로 산업별 고용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분율로 구한 산업별 고용비중에 '15~64세 고용률÷100'을 곱한 값을 이용해서 나라별 비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백분율로 산업별 고용비중을 비교하게 되면 나라별 고용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별 고용비중이 아니라 산업별 고용의 합이 전체 고용률이 되도록 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산업의 고용규모가 더 크고 작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할 경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더 주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도 더 유용할 수 있다.

분석대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정형화된 유형들인 자유주의형과 대륙유럽형, 남유럽형, 북유럽형, 동아시아형 등 5개 유형의 11개 나라를 선정하였다.<sup>1)</sup> 분석대상 시기는 각 나라의 대분류 산업별로 1970, 1980, 1990, 2000, 2008년의 고용규모, 세분화된 서비스산업별로 1990년대 초반과 2000년, 2008년이다. 다만 표준 산업분류가 중간에 바뀌고, 나라별로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ILO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동일한 비교시점에 맞는 통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나라별로 통계가 수집된 시기가 다르거나, 독일과 같이 통일 이후만을 고려해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1) 사회경제체제 유형화 및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 12일에 있었던 한국노동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발표문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과 비교분석」, 제II장 참조.

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한 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나라는 비교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II. 사회경제체제 유형별 산업별 고용규모 변화

### 1. 동아시아형: 한국과 일본

현재 시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고용률이 일본보다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일 두 나라의 산업별 고용구조는 매우 비슷하다. 한국이 일본보다 2차산업과 3차산업의 고용규모가 작고, 1차산업의 고용규모가 크다.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았을 때 일본이 한국에 비해 도소매업과 부동산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약간 크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고용률이 6.9%p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추세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에서 제조업의 고용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1990년의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고용규모는 각각 생산가능인구의 16.5%와 16.6%로 비슷하지만, 2008년에 한국은 10.7%로 5.9%p 줄어든 반면, 일본은 13.0%로 3.5%p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규모 격차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우려할 만큼 빠르다.

서비스업의 추세에서 양국 모두 두드러지는 것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업의 고도화와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가 바뀌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의 서비스업 고용구조 비교에서 보았듯이 아직 두 나라의 경우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발달이 뒤쳐진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큰 음식숙박업, 일본의 경우 도소매업의 고용규모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이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80→2008)

(단위: %)

	1980	1990	1980→1990	2000	1990→2000	2008	2000→2008
1차	20.1	11.0	-9.2	6.5	-4.5	4.6	-2.0
2차	17.1	21.7	4.5	17.3	-4.4	15.9	-1.4
제조업	12.8	16.6	3.8	12.5	-4.1	10.7	-1.8
2차나머지	4.4	5.1	0.7	4.8	-0.2	5.2	0.4
3차	21.9	28.6	6.7	37.7	9.0	43.3	5.7
도소매음식숙박	11.3	13.4	2.0	16.7	3.4	15.4	-1.4
교통통신	2.7	3.1	0.4	3.7	0.5	5.1	1.4
금융보험부동산	1.4	3.2	1.8	6.1	2.9	8.2	2.1
공공사회개인서비스	6.4	8.9	2.5	11.1	2.2	14.6	3.5
계	59.2	61.2	2.1	61.5	0.2	63.8	2.3

(나)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1992→2008)

	1992	2000	1992→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10.4	11.1	0.7	9.8	-1.3
음식숙박업	4.0	5.6	1.6	5.5	-0.1
교통통신업	3.3	3.7	0.4	5.1	1.4
금융서비스업	1.9	2.2	0.3	2.2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2	4.0	1.8	6.0	2.0
공공국방행정	1.8	2.2	0.4	2.3	0.1
교육	3.0	3.5	0.5	4.8	1.4
보건및사회복지	0.9	1.2	0.3	2.3	1.0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2.4	3.6	1.2	4.8	1.2
가사서비스업	0.6	0.5	-0.1	0.4	-0.1
국제기구등기타	0.1	0.1	0.0	0.0	0.0
계	30.6	37.7	7.1	43.3	5.7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2> 일본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0→2008)

(단위: %)

	1970	1980	1970 →1980	1990	1980 →1990	2000	1990 →2000	2008	2000 →2008
1차	11.8	7.0	-4.9	5.0	-2.0	3.5	-1.5	3.0	-0.5
2차	24.3	23.6	-0.7	23.4	-0.2	21.5	-1.9	19.3	-2.2
제조업	18.4	16.5	-1.9	16.5	0.0	14.1	-2.4	13.0	-1.1
2차나머지	5.9	7.1	1.2	6.8	-0.3	7.4	0.5	6.3	-1.1
3차	31.8	36.1	4.3	39.9	3.9	43.5	3.5	47.6	4.1
도소매음식숙박	13.5	15.1	1.6	15.5	0.5	15.7	0.2	16.7	0.9
교통통신	4.3	4.2	-0.1	4.1	-0.1	4.4	0.3	4.3	-0.1
금융보험부동산	1.8	3.8	2.1	5.7	1.8	6.6	0.9	10.4	3.8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2.2	13.0	0.8	14.6	1.7	16.7	2.1	16.2	-0.5
기타	0.1	0.2	0.1	0.3	0.2	0.4	0.1	0.8	0.4
계	67.9	66.8	-1.1	68.6	1.8	68.9	0.3	70.7	1.9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2003→2008)

	2003	2008	2000→2008
도소매업	13.0	13.0	0.0
음식숙박업	3.8	3.7	-0.1
교통통신업	4.3	4.3	0.0
금융서비스업	1.7	1.8	0.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7.0	8.5	1.6
공공국방행정	2.5	2.5	0.0
교육	3.0	3.2	0.2
보건및사회복지	5.4	6.6	1.2
기타	3.8	4.0	0.1
계	44.5	47.6	3.1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 2. 자유주의형 : 미국과 영국

현재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고용률과 산업별 고용구조는 매우 비슷하다.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거의 유사하다. 다만 영국이 미국에 비해 교통통신업과 공공국방행정의 규모가 조금 큰 반면, 음식숙박업의 규모가 조금 작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기별로 추이를 보면 영국이 미국에 비해 제조업의 감소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영국은 1990년까지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든 반면, 미국은 1970년 이후 꾸준히 고용규모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영국에서 1980년대 말~1990년대에 탈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던 배경이다. 서비스업에서는 두 나라 모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공공사회개인서비스의 성장속도가 빠른 반면,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늘어난다.

<표 3> 미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0→2008)

(단위: %)

	1970	1980	1970→1980	1990	1980→1990	2000	1990→2000	2008	2000→2008
1차	2.9	2.4	-0.5	2.1	-0.3	1.9	-0.2	1.1	-0.8
2차	22.2	20.7	-1.5	19.1	-1.6	17.2	-1.9	14.1	-3.1
제조업	16.9	14.8	-2.0	13.0	-1.9	10.9	-2.0	7.8	-3.2
2차나머지	5.3	5.8	0.5	6.1	0.3	6.2	0.1	6.3	0.1
3차	38.9	44.1	5.2	51.0	6.9	55.0	4.0	55.7	0.7
도소매음식숙박	12.2	13.7	1.5	15.0	1.3	15.3	0.3	14.8	-0.4
교통통신	3.4	3.5	0.1	4.0	0.5	4.5	0.5	3.2	-1.4
금융보험부동산	4.4	5.7	1.3	8.2	2.5	9.1	0.9	12.6	3.5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9.0	21.4	2.4	23.9	2.6	26.2	2.3	25.2	-1.0
계	64.0	67.2	3.2	72.2	5.0	74.1	1.9	70.9	-3.2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2003→2008)

	2003	2008	2003→2008
도소매업	10.7	10.0	-0.7
음식숙박업	4.7	4.8	0.1
교통통신업	3.0	3.2	0.2
금융서비스업	3.5	3.5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8.7	9.0	0.3
공공국방행정	3.2	3.3	0.1
교육	6.1	6.4	0.3
보건및사회복지	8.5	8.9	0.4
기타	6.8	6.6	-0.2
계	55.2	55.7	0.5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4> 영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84→2008)

(단위: %)

	1984	1990	1984→ 1990	2000	1990→ 2000	2008	2000→ 2008
1차	1.7	1.5	-0.1	1.1	-0.4	1.1	0.0
2차	21.0	23.4	2.4	18.1	-5.3	15.4	-2.7
제조업	15.1	16.1	1.0	12.2	-4.0	8.7	-3.4
2차나머지	5.9	7.3	1.4	5.9	-1.3	6.7	0.7
3차	42.4	47.0	4.6	52.7	5.7	55.9	3.2
도소매음식숙박	13.1	14.5	1.3	14.2	-0.3	13.8	-0.3
교통통신	4.0	4.6	0.6	4.9	0.3	4.8	-0.1
금융보험부동산	6.0	8.9	3.0	11.1	2.2	12.0	0.9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9.3	19.0	-0.3	22.6	3.5	25.3	2.7
기타	0.9	0.5	-0.4	0.2	-0.3	0.3	0.1
계	65.9	72.5	6.5	72.2	-0.3	72.7	0.5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88→2008)

	1988	2000	1988→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11.3	11.1	-0.1	10.6	-0.5
음식숙박업	3.0	3.0	0.1	3.2	0.1
교통통신업	4.4	4.9	0.5	4.8	-0.1
금융서비스업	3.0	3.1	0.2	3.2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4.9	8.0	3.2	8.9	0.9
공공국방행정	4.4	4.5	0.1	5.2	0.7
교육	4.7	5.8	1.1	6.6	0.8
보건및사회복지	5.7	7.9	2.2	9.0	1.1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3.1	4.0	0.9	4.1	0.1
가사서비스업	0.5	0.4	-0.2	0.3	0.0
국제기구등기타	0.1	0.1	0.0	0.0	0.0
계	45.0	52.7	7.8	55.9	3.2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 3. 대륙유럽형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독일에서 2차산업의 고용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고용률 및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는 대부분 독일에서 2차산업 고용규모가 프랑스보다 6%p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제외하면 두 나라 사이에 커다란 고용구조의 차이는 없다. 서비스업만 놓고 보더라도 독일이 프랑스보다 도소매업의 고용규모가 약간 크고, 공공국방행정의 고용비중이 약간 낮다는 점만 제외하면 두 나라의 산업별 고용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네덜란드의 2차산업 고용규모는 2008년 현재 프랑스보다 약간 낮아서 독일보다 7.1%p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프랑스보다 8.7%p, 독일보다는 8%p 높다. 또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기타의 규모가 4.3%에 이른다.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고용규모가 크고, 특히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과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크다. 다만, 공공국방행정과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약간 적다.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2000년까지는 제조업이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 감소추세가 멈추고 오히려 약간 늘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비교대상국가들과 다르다.

서비스업의 추세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네덜란드의 서비스업 고용 확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와 같이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빠른 고용규모 확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네덜란드 모델(Polder model, 혹은 Dutch model)’로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서비스업 내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에서 금융보험부동산과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난다.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고용증가 규모가 큰 것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다. 특히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관련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빠르게 늘어났다.

전반적인 유형내 산업구조의 동질성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다른 두 유형보다 동질성이 떨어진다. 세 나라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산업별 고용규모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네덜란드는 서비스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5> 독일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91→2008)

(단위 : %)

	1991	2000	1991→2000	2008	2000→2008
1차	2.8	1.8	-1.0	1.6	-0.2
2차	26.9	21.7	-5.3	20.9	-0.8
제조업	20.8	15.3	-5.5	15.5	0.2
2차나머지	6.1	6.4	0.2	5.4	-1.0
3차	37.2	42.1	4.9	47.9	5.8
도소매음식숙박	9.5	11.5	2.0	12.3	0.8
교통통신	4.1	3.6	-0.5	3.9	0.3
금융보험부동산	5.0	7.6	2.6	9.9	2.3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8.6	19.4	0.8	21.8	2.4
계	66.9	65.6	-1.4	70.4	4.8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97→2008)

	1997	2000	1997→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9.1	9.3	0.2	9.6	0.3
음식숙박업	2.0	2.2	0.2	2.7	0.5
교통통신업	3.5	3.6	0.1	3.9	0.3
금융서비스업	2.2	2.4	0.1	2.4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4.4	5.2	0.8	7.6	2.3
공공국방행정	5.9	5.6	-0.3	5.2	-0.4
교육	3.4	3.5	0.1	4.2	0.7
보건및사회복지	6.1	6.6	0.5	8.2	1.6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3.2	3.5	0.3	3.8	0.4
가사서비스업	0.2	0.2	0.0	0.4	0.1
국제기구등기타	0.1	0.1	0.0	0.1	0.0
계	40.1	42.1	2.0	47.9	5.8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6> 프랑스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0→2008)

(단위: %)

	1970	1980	1970→ 1980	1990	1980→ 1990	2003	1990→ 2003	2008	2003→ 2008
1차	8.6	5.4	-3.2	3.3	-2.1	2.6	-0.7	2.0	-0.7
2차	24.9	22.7	-2.2	17.5	-5.2	15.4	-2.1	14.9	-0.5
제조업	17.5	16.3	-1.2	12.4	-3.8	10.6	-1.9	9.7	-0.9
2차나머지	7.5	6.4	-1.0	5.1	-1.4	4.8	-0.2	5.2	0.4
3차	30.9	36.0	5.1	38.4	2.4	44.4	6.0	47.2	2.8
도소매음식숙박	10.0	10.0	0.0	9.9	-0.1	10.5	0.6	10.7	0.2
교통통신	3.7	3.9	0.2	3.7	-0.2	4.0	0.3	4.1	0.1
금융보험부동산	3.1	4.8	1.7	6.0	1.2	8.2	2.1	8.9	0.7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4.1	17.3	3.2	18.7	1.5	21.7	3.0	23.5	1.8
기타	0.0	0.0	0.0	0.0	0.0	0.9	0.9	0.5	-0.4
계	64.4	64.1	-0.3	59.2	-4.8	63.3	4.1	64.6	1.3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2003→2008)

	2003	2008	2003→2008
도소매업	8.4	8.5	0.1
음식숙박업	2.1	2.2	0.1
교통통신업	4.0	4.1	0.1
금융서비스업	1.9	2.0	0.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6.3	6.9	0.7
공공국방행정	5.8	6.6	0.8
교육	4.4	4.5	0.1
보건및사회복지	7.2	8.0	0.8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2.6	2.9	0.3
가사서비스업	1.7	1.5	-0.2
국제기구등기타	0.0	0.0	0.0
계	44.4	47.2	2.8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7> 네덜란드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1→2008)

(단위: %)

	1971	1980	1970→ 1980	1990	1980→ 1990	2000	1990→ 2000	2008	2000→ 2008
1차	4.1	2.7	-1.4	2.8	0.1	2.3	-0.5	2.1	-0.3
2차	22.1	17.1	-4.9	16.0	-1.1	14.9	-1.1	13.8	-1.1
제조업	15.0	11.7	-3.3	11.5	-0.2	10.1	-1.4	8.8	-1.4
2차나머지	7.1	5.4	-1.6	4.5	-1.0	4.8	0.3	5.0	0.2
3차	30.5	34.7	4.1	42.4	7.7	51.5	9.1	55.9	4.4
도소매음식숙박	10.3	4.9	-5.4	10.7	5.9	14.1	3.4	13.7	-0.4
교통통신	3.8	9.5	5.7	3.7	-5.8	4.3	0.6	4.6	0.3
금융보험부동산	3.2	3.4	0.1	6.3	2.9	11.2	4.9	12.1	0.9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3.2	5.0	-8.2	21.7	16.7	21.9	0.2	25.5	3.7
기타	0.0	0.0	0.0	0.6	0.6	3.3	2.8	4.3	1.0
계	56.7	54.5	-2.2	61.8	7.3	72.1	10.3	76.1	4.0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95→2008)

	1995	2000	1995→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10.5	11.6	1.0	10.7	-0.9
음식숙박업	2.3	2.5	0.3	3.0	0.5
교통통신업	3.9	4.3	0.5	4.6	0.3
금융서비스업	2.1	2.5	0.4	2.2	-0.3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6.3	8.7	2.4	9.9	1.2
공공국방행정	5.0	4.5	-0.5	4.9	0.3
교육	4.2	4.3	0.1	4.9	0.6
보건및사회복지	8.9	9.7	0.9	12.2	2.5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2.6	3.3	0.7	3.5	0.2
가사서비스업	0.1	0.0	-0.1	0.1	0.0
국제기구등기타	0.0	0.0	0.0	0.0	0.0
계	45.8	51.5	5.7	55.9	4.4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 4. 남유럽형 :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고용률은 1990년까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스페인의 고용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08년 현재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고용률이 6.6%p 더 높아졌다. 2) 고용률이 비슷했던 1990년에는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농업의 고용규모가 약간 크고, 서비스업 특히 공공사회개인서비스의 고용규모가 약간 작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1990년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서 2008년 현재 스페인은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이탈리아보다 고용규모가 크다. 또한 절대적인 고용규모 차이와 함께 2차산업과 3차산업 사이의 내부 구성에서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우선 2차산업 내부에서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전체 2차산업의 고용규모는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크지만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큰 반면, 스페인은 건설업 등 기타 2차산업의 고용규모가 크다. 이는 이탈리아가 제조업 고용규모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표 8〉 이탈리아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7→2008)

(단위: %)

	1977	1980	1977→ 1980	1990	1980→ 1990	2000	1990→ 2000	2008	2000→ 2008
1차	8.4	7.6	-0.8	4.6	-2.9	2.8	-1.8	2.2	-0.6
2차	20.4	20.1	-0.3	16.8	-3.3	17.2	0.4	17.5	0.3
제조업	14.6	14.2	-0.4	11.7	-2.5	12.5	0.8	12.1	-0.4
2차나머지	5.8	5.9	0.1	5.1	-0.8	4.7	-0.4	5.4	0.7
3차	25.1	26.3	1.1	31.2	4.9	33.9	2.7	39.0	5.2
도소매음식숙박	9.6	9.9	0.3	11.1	1.2	10.6	-0.5	11.8	1.2
교통통신	3.0	3.0	0.0	2.8	-0.1	3.0	0.2	3.2	0.2
금융보험부동산	1.1	1.4	0.2	2.2	0.8	5.4	3.2	8.2	2.8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1.4	12.0	0.6	15.0	3.0	14.8	-0.3	15.7	1.0
계	53.9	53.9	0.0	52.6	-1.3	29.0	-23.6	58.7	29.7

2) 다만,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에 기반해서 성장했던 스페인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93→2008)

	1993	2000	1993→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8.4	8.6	0.2	8.9	0.3
음식숙박업	1.7	2.1	0.4	3.0	0.9
교통통신업	2.9	3.0	0.1	3.2	0.2
금융서비스업	1.6	1.7	0.1	1.6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4	3.8	1.3	6.6	2.8
공공국방행정	4.9	4.9	0.0	3.6	-1.3
교육	3.6	3.7	0.1	4.0	0.3
보건및사회복지	3.0	3.3	0.3	4.2	0.9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2.0	2.3	0.3	2.9	0.6
가사서비스업	0.5	0.5	0.0	1.1	0.6
국제기구등기타	0.0	0.1	0.0	0.1	0.0
계	31.0	33.9	2.9	39.0	5.2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9> 스페인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2→2008)

(단위 : %)

	1972	1980	1972→1980	1990	1980→1990	2000	1990→2000	2008	2000→2008
1차	14.8	10.2	-4.7	6.1	-4.0	3.8	-2.3	2.8	-1.0
2차	21.0	18.9	-2.1	17.3	-1.7	17.8	0.5	18.1	0.4
제조업	14.5	13.4	-1.1	11.6	-1.9	10.8	-0.7	9.9	-0.9
2차나머지	6.5	5.5	-1.0	5.7	0.2	7.0	1.3	8.3	1.3
3차	22.0	23.6	1.6	28.4	4.8	35.8	7.4	44.3	8.5
도소매음식숙박	9.2	9.2	0.0	10.5	1.3	13.0	2.6	15.1	2.1
교통통신	3.2	3.0	-0.1	3.0	0.0	3.4	0.4	3.8	0.4
금융보험부동산	1.5	1.8	0.3	2.8	1.0	5.7	2.9	8.3	2.6
공공사회개인서비스	8.2	9.6	1.4	12.1	2.6	13.6	1.5	17.1	3.4
계	57.8	52.7	-5.2	51.8	-0.9	57.4	5.6	65.3	7.9

##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92→2008)

	1992	2000	1992→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8.5	9.3	0.8	10.4	1.1
음식숙박업	2.7	3.7	1.0	4.7	1.0
교통통신업	3.0	3.4	0.4	3.8	0.4
금융서비스업	1.4	1.5	0.2	1.6	0.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5	4.2	1.7	6.7	2.5
공공국방행정	3.2	3.6	0.4	4.1	0.5
교육	2.5	3.1	0.6	3.6	0.5
보건및사회복지	2.3	3.1	0.8	4.1	1.0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1.7	2.2	0.5	2.7	0.5
가사서비스업	1.4	1.6	0.2	2.4	0.8
국제기구등기타	0.0	0.0	0.0	0.0	0.0
계	29.1	35.8	6.7	44.3	8.5

자료 : ILO, Laborsta(laborsta.ilo.org).

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은 빠르게 줄면서 1990년대 이후 건설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스페인의 고용률 확대의 건강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약간 작은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나 가사서비스업과 같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고용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시기별 서비스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의 확대를 주도한다.

## 5. 북유럽형 : 스웨덴과 덴마크

스웨덴과 덴마크의 고용구조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 스웨덴의 고용률이 199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반면 덴마크는 고용률이 꾸준히 늘어서 2008년 시점에 스웨덴보다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스웨덴보다 덴마크의 고용률이 약간 더 높기 때문에 1:2:3차 산업 모두 스웨덴보다 덴마크의 고용규모가 약간 더 크다. 2차산업 내에서도 제조업과 제조업 이외의 고용규모가 모두 덴마크가 약간 더 크다. 다만 시기별 추세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스웨덴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1980년대 초까지 덴마크보다 상당히 높았다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덴마크는 제조업의 고용규모 감소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 그 결과 덴마크의 제조업 고용 규모는 2008년 현재 비교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크다.

다른 유형에 속한 나라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스웨덴과 덴마크가 2008년 현재 각각 57.6%와 58.2%로서 비교대상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표 10> 스웨덴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70→2008)

(단위: %)

	1970	1980	1970→1980	1990	1980→1990	2000	1990→2000	2008	2000→2008
1차	5.8	4.5	-1.4	2.9	-1.6	1.7	-1.1	1.7	-0.1
2차	27.5	25.7	-1.8	24.2	-1.6	18.2	-5.9	16.4	-1.8
제조업	19.9	19.3	-0.5	17.5	-1.9	13.5	-3.9	10.8	-2.7
2차나머지	7.7	6.4	-1.3	6.7	0.3	4.7	-2.0	5.6	0.9
3차	38.9	49.6	10.7	56.1	6.5	54.2	-1.9	57.6	3.4
도소매음식숙박	10.7	11.0	0.3	12.0	1.1	11.4	-0.7	11.7	0.4
교통통신	5.0	5.6	0.6	5.9	0.3	5.0	-0.9	4.5	-0.4
금융보험부동산	3.7	5.3	1.6	6.9	1.6	10.5	3.5	13.0	2.6
공공사회개인서비스	19.5	27.8	8.3	31.3	3.5	27.4	-3.9	28.3	0.9
기타	0.0	0.0	0.0	0.0	0.0	0.1	0.1	0.1	0.0
계	72.3	79.8	7.6	83.1	3.3	74.2	-8.9	75.7	1.5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87→2008)

	1987	2000	1987→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10.4	9.3	-1.1	9.3	0.0
음식숙박업	1.7	2.1	0.4	2.4	0.4
교통통신업	5.8	5.0	-0.8	4.5	-0.4
금융서비스업	1.7	1.6	-0.2	1.5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4.9	8.9	4.0	11.5	2.6
공공국방행정	4.5	4.0	-0.5	4.3	0.3
교육	5.7	5.9	0.2	8.0	2.1
보건및사회복지	15.4	13.8	-1.6	11.9	-1.9
기타	3.6	3.8	0.1	4.1	0.3
계	53.8	54.2	0.5	57.6	3.4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표 11〉 덴마크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가)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83→2008)

(단위: %)

	1983	1990	1983→ 1990	2000	1990→ 2000	2008	2000→ 2008
1차	5.2	4.2	-1.0	2.5	-1.6	2.0	-0.5
2차	19.9	20.5	0.6	20.0	-0.5	17.7	-2.2
제조업	14.8	15.0	0.2	14.3	-0.7	11.8	-2.5
2차나머지	5.1	5.5	0.4	5.7	0.2	5.9	0.3
3차	44.6	50.2	5.6	53.7	3.5	58.2	4.5
도소매음식숙박	9.5	11.0	1.5	12.4	1.4	14.2	1.7
교통통신	5.2	5.3	0.1	4.9	-0.4	4.4	-0.5
금융보험부동산	4.6	7.0	2.4	9.4	2.4	10.5	1.1
공공사회개인서비스	25.3	26.9	1.6	26.9	0.0	29.1	2.2
기타	0.5	0.5	0.0	0.2	-0.3	0.1	-0.1
계	70.3	75.4	5.2	76.4	1.0	78.1	1.7

(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1994→2008)

	1994	2000	1994→2000	2008	2000→2008
도소매업	10.0	10.6	0.6	11.9	1.3
음식숙박업	1.8	1.9	0.1	2.3	0.4
교통통신업	4.8	4.9	0.1	4.4	-0.5
금융서비스업	2.5	2.4	-0.1	2.4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5.6	7.0	1.4	8.1	1.1
공공국방행정	5.2	4.5	-0.7	4.9	0.4
교육	5.1	5.5	0.4	5.8	0.3
보건및사회복지	11.2	13.3	2.1	14.3	1.0
기타개인사회서비스업	3.0	3.4	0.4	4.1	0.7
가사서비스업	0.3	0.1	-0.2	0.0	-0.1
국제기구등기타	0.0	0.0	0.0	0.0	0.0
계	49.5	53.7	4.2	58.2	4.5

자료: ILO, Laborsta(laborsta.ilo.org).

는 점이다. 다만, 서비스업 고용의 세부 구성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덴마크가 도소매업과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스웨덴은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크다.

시기별로 서비스업의 고용규모 추세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덴마크보다 빠르게 늘어났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줄어드는 반면, 덴마크는 꾸준히 이 분야의 고용규모가 늘어났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도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0년까지는 이 분야의 고용규모가 덴마크보다 컸지만, 2008년에 이르르면 덴마크의 고용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 III.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고용률 수준에 맞추어 조정한 산업별 고용규모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구조의 실태와 추이를 비교하였다.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경제체제 유형별로 유형내 동질성의 정도를 보면 동아시아형,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의 경우 동질성이 크고 대륙유럽형의 경우 동질성이 적은 편에 속한다. 대륙유럽형에 속한 나라들 사이에 고용률 격차도 크고 산업구조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남유럽형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동질적이었지만 이후 스페인이 제조업 고용은 빠르게 줄고 건설업 및 부동산 붐에 기반해서 성장하면서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추세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에서 제조업이 감소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제조업의 감소추세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 영국, 스페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줄어든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비교적 제조업의 고용규모 감소폭이 적고, 가장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큰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고용규모 감소추세가 반전되어 고용규모가 소폭 늘어난다.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증가추세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체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의 중요성이 금융보험부동산보다 큰 나라들은 북유럽형과 대륙유럽형에 속한 나라들이다. 한편 영미형과 네덜란드에서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달했다.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꾸준히 늘어나지만, 시기별로는 편차가 있다. 북유럽형에서 가장 먼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늘어났고, 다음으로 자유주의형, 대륙유럽형, 남유럽형과 아시아형의 순서로 고용규모가 늘어나는 시기가 늦어진다.



산업별 고용규모 비교와 변화 추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외부문의 균형에 기반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운동을 위해 제조업의 중요성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EU경제 전체의 독일에 대한 의존, 높은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외수지 흑자와 높은 국내저축률에 기초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빠르게 줄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에 제조업 고용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제조업 고용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뒤처지고 발전속도도 느다는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성장을 견인한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치화와 양적인 확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규모가 큰 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성장부문으로의 고용조정 지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려는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고용규모가 작은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KCI**